9일 대망의 그랑프리 레이스…2018년 우승컵의 주인공은?



한국 최고의 경주마들이 출전하는 제37회 그랑프리가 9일 렛츠런파크 서울 제9경주로 열린다. 트리플나인과 청담도끼, 돌콩(왼쪽부터) 등이 출전해 불꽃 튀는 한판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트리플나인의 독주냐…신흥강자들의 반란이냐

트리플나인, 대통령배 4연패 상승세
청담도끼·돌콩·투데이 대항마 출격

한국경마 최고의 경주인 그랑프리 우승컵의 2018년 주인공을 가린다. 제37회 그랑프리(GI, 경주상금 8억원)가 오는 9일(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제9경주(16시45분)로 열린다. 2300m로 최장거리이며, 산지에 제한 없이 3세 이상 경주마들이 출전한다. 트리플나인, 청담도끼 등의 명마와 투데이, 돌콩, 문학치프 등의 신예마가 신구 강자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트리플나인, 대통령배에 이어 그랑프리도?

최고의 국산마를 선발하는 대통령배 4연패를 달성한 트리플나인(한국, 수, 6세, R127, 승률 46.7%, 복승률 83.3%)은 리딩사이어(Leading Sire, 우수씨수말) 엑톤파크의 자마로 장거리형 경주마다. 타고난 승부사 기질과 종반 추입 능력이 우수하다. 30번의 출전 경험 중 22번이 해외경주를 포함한 대상경주 출전으로 큰 대회에서 강자들과 겨루며 실력을 쌓았다.

특히 올해 출전한 총 4번의 경주에서 2번 우승, 2·3위 각 1회씩 기록하는 등 상승세다. 무엇보다 이번 경주거리인 2300m 출전 경험이 3번이나 있어, 경주 전략 수립 측면에서 유리하다. 6세로 경주마로서는 다소 전성기를 넘긴 나이이긴 하나, 관록과 특유의 근성으로 승부한다면 신흥 강자들과의 대결도 문제없어 보인다.

●세대교체? 청담도끼·돌콩·투데이 출격

서울 경주마의 세대교체를 불러온 청담도끼(미국, 거, 4세, R130, 승률 66.7%, 복승률 83.3%)는 최근 출전한 KRA컵 클래식(GII) 대상경주에서 기존 강자인 트리플나인을 누르고 우승했다. 특히 올해 출전한 총 6번의 경주에서 단 한 경주를 제외하고 모두 1위를 달성할 만큼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돌콩(미국, 수, 4세, R119, 승률 60%, 복승률 90%)은 지난 9월 국제경주 코리아컵에서 클린업조이, 청담도끼 등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을 만큼 실력을 검증받은 신흥강자다. 다만, 지난 10월 오른쪽 앞다리 부분에 부상이 발생해 약 2달간 휴식 후의 출전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경마계의 명장'으로 불리는 김영관 조교사가 트리플나인과 함께 출전시키는 부경의 투데이(한국, 거, 4세, R119, 승률 66.7%, 복승률 66.7%)도 눈에 띈다. 투데이는 데뷔 후 출전한 총 15번의 경주에서 단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입상한 저력의 경주마다. 비록 1800m 이상 장거리 출전경험은 없으나, 올 한해 대상경주만 3번이나 출전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케이닉스 사업부터 아시아경마회의까지…경마 한류 시대 '활짝'

2018년 한국경마 글로벌 성과 결산

케이닉스 경주마 미국서 준우승
레이스 실황 4대륙 수출 쾌거도

올 한해 한국경마의 글로벌 성과가 눈에 띈다. 케이닉스 경주마 닉스고의 활약, 아시아경마회의 개최 등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인 한국마사회의 2018년 글로벌 성과를 짚어봤다.

●해외종축사업 3년 만에 세계무대서 입증

지난 11월 해외종축사업 케이닉스(K-NICKS)로 선발한 경주마 닉스고(2세, 수말)가 미국 브리더스컵에서 준우승을 달성했다. 케이닉스는 유전자 기술을 활용해 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경주마를 조기 발굴해 씨수말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닉스고가 출전한 브리더스컵은 미국에서 한해 생산되는 2세 경주마 중 단 0.2%만이 출전할 수 있는 경주로 '경마올림픽'이라 불린다. 경주 결과에 따라 몸값이 도입가의 26배 이상인 20억원에 이르는 닉스고는 내년 5월에 개최되는 미국 켄터키더비 출전을 준비 중이다. 우승하면 몸값만 100억원대로 급등할 전망이다. 한국마사회는 추후 닉스고를 씨수말로 육성해 우수 국산마 생산은 물론 경주마 수출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수 씨수말의 도입은 국내산마 개량뿐만 아니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마종주국 영국에 경주 수출

한국마사회는 올해 6월 경마의 종주국으로 불리는 영국을 대상으로 경마를 수출했다. 100년 남짓한 경마 역사를 지닌 한국이 17세기경 세계 최초로 경마 스포츠를 탄생시킨 영국에 역수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뉴질랜드까지 수출시장을 넓혔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경마 실황 해외수출사업을 본격화하며, 말레이시아, 프랑스, 호주, 홍콩 등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미주 4대륙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2017년 기준 8개국으로 수출하여 달성한 해외매출액만 약 629억원에 이른다.

●아시아경마회의 개최…한국경마를 알리다

지난 5월 서울 일대에서 제37회 아시아경마회의가 열렸다. 한국경마 역사상 3번째였으며, 인도에서 주최한 제36회 아시아경마회의보다 참석인원이 2배가 넘어 화제를 모았다. 한국마사회는 혁신·협력·변화를 주제로 발매, 불법경마 등의 국제회의를 이끌었으며, 코리안더비(G1)와 같은 국내 주요 경주를 선보이며 수출 교두보를 확대했다. 이번 개최로 PART1 경마선진국으로의 진입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2018년은 한국경마의 글로벌 성과가 눈에 띄는 한해"라며, "지속적으로 세계시장으로 진출해 국내 말산업 육성은 물론 수익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미리 소액으로…'미소구매' 이벤트

'미리 소액으로 구매하는 이벤트'의 줄임말인 미소구매 이벤트가 확대 시행된다. 한국마사회는 12월30일까지 발매 마감 5분전까지 5000원 이하로 구매하는 마권을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자동 추첨한다. 자세한 안내는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그랑프리 경주 기념 럭키박스 증정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이 9일(일)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그랑프리(G1) 경주를 기념해 해당경주(서울9경주)에 3만원 이상 마토(마권) 구매 시, 랜덤으로 추첨해 총 500명에게 럭키박스를 증정한다. 럭키박스는 최소 1만5000원에서 최대 5만원 상당의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toto 스포츠토토

축구팬 54% "맨시티, 첼시 잡는다"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12월 8일(토)부터 10일(월)까지 벌어지는 잉글랜드 프로축구(EPL) 7경기와 스페인 프로축구(프리메라리가) 7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35회차 첼시(홈)-맨시티(원정)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53.97%가 원정팀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25.68%로 나타났고, 홈팀 첼시의 승리 예측은 20.35%를 기록했다.

EPL 상위권 팀들인 맨체스터시티(이하 맨시티)와 첼시가 경기를 펼친다. 현재 맨시티는 리그에서 단 1패도 기록하지 않으며 리그 1위에 올라있다. 반대로 첼시는 지난 11월 24일 펼쳐진 토트넘전과 5일 치러진 울버햄턴전에서 패배하며, 4위로 내려앉았다. 맨시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순항 중이다. 이번 시즌 개막 후 두 차례의 무승부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승리한 맨시티는 지난 4일 왓포드전에서도 2-1로 승리를 챙겼다. 아직 시기상조지만, 무패 우승의 희망도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첼시는 고비를 맞았다. 아자르를 주축으로 리그에서 무패 기록을 이어오던 중 최근 토트넘과 울버햄턴에게 일격을 맞았기 때문이다. 리그 5위 토트넘에게 1-3으로 패한 경기는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다면, 중위권에 위치한 울버햄튼(리그 12위)에게 1-2로 패배한 경기는 충격에 가까웠다. 첼시는 이날 패배로 근소하게 앞서있던 아스널에게도 3위자리를 내줬다.

이번 경기는 리그 최상위권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는 첼시와 무패 기록을 이어나가려는 맨시티의 대결로 압축될 가능성이 많다. 서로 다른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양팀이지만, 압도적인 공격력을 기반으로 리그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맨시티가 최근 리그에서 2패를 기록한 첼시를 상대로 더욱 우세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한 판이다.

이번 승무패 35회차는 오는 8일(토) 오후 8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토토 빙상단, 종목전향 지원 결실

쇼트트랙→빙속…엄천호 최대 수혜

국내 유일의 기업 빙상팀인 스포츠토토 빙상단이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종목을 오가는 '종목전향 지원 프로그램'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종목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합동 훈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선수들간의 종목 전환 등 선진적인 멀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빙상단의 운영방식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종목전향 지원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는 이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2차 대회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며 대한민국 남자 선수 중 유일하게 매스스타트 부문 연속 메달을 획득한 엄천호다.

엄천호는 2009년 ISU 쇼트트랙 세계주니어선수권 남자개인종합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 빙상계의 최고 꿈나무였지만, 이후 8차례에 달하는 수술과 잦은 부상을 겪으며 한때 큰 좌절을 겪기도 했다.

부활의 서막은 엄천호 선수가 지난 2016년에 스포츠토토빙상단 창단과 동시에 팀에 입단하면서부터다. 엄천호는 이후 장거리 스케이팅 분야에 잠재력을 발견한 스포츠토토빙상단 코칭스텝들의 권유로 쇼트트랙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했고, 스포츠토토빙상단의 적극적인 종목전향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0월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등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스포츠토토빙상단의 종목전향 지원 프로그램은 창단 때부터 국제 빙상계의 흐름에 다라 팀의 핵심가치로 가져간 시스템이다. 실제로 벤쿠버올림픽 2관왕 이정수와 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신새봄 등이 두 종목 훈련을 병행했으며,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켜왔다.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종목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빙상팀과 달리 스포츠토토빙상단은 두 종목의 합동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시즌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선수들에게 각 종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토론토, 압도적 승리" 80%
농구토토 승5패 중간집계

국내 농구팬들은 2018-19시즌 농구토토 승5패 21회차에서 동부지구 1위 토론토랩터스의 압도적인 승리를 전망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오는 7일(금)부터 8일(토)까지 벌어지는 미국프로농구(NBA) 9경기와 국내남자프로농구(KBL) 5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농구토토 승5패 21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토론토랩터스가 80.09%로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팀의 5점 이내 접전 예상은 12.13%로 나타났고, 홈팀 브루클린네츠의 승리 예상은 7.78%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KBL에서는 모비스(57.85%)와 전자랜드(56.72%)가 각각 부산KT(14.51%)와 고양오리온(17.31%)을 상대로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2경기 안양KGC-창원LG전의 경우 5점차 승부 예측이 41.7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번 회차 최고의 접전 승부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